

광주 YWCA 이사, 위원, 직원 총일회
1966. 3. 29(차)

YWCA는 시대성에 입각하고 있는가?

오늘 광주 YWCA의
이사, 위원, 직원 총일회에
참가할수 있는 기회 주신것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광주 YWCA는
오늘날 누구나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YWCA 가운데서
활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YWCA로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 손님을 모시고 올때 그림듯이
이번에 서규현 선생님에게도
또한 광주 YWCA를 자랑할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오늘 의 광주YWCA를 이룩하는데
전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여기에 계신 여러 지도자들에게
연합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염곡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 YWCA는 시대성에 입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서
YWCA는 시대성에 민감하며
이에 의해서
투표그림 전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궤에서,
실질적으로
시대가 요청하는 YWCA가
오늘되고 있는가들
다짐하여 보려는
광주 YWCA 지도자들의 뜻을
놀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 상황을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토시고
분석할수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며
저는 하나의 전달자로서

그동안 연합회에서 가졌던
연구회들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하여
보입니다.

- 1)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시대성
- 2)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천에 있어서의 시대성
- 3) 부녀자의 사회 진출에 있어서의
시대성
- 4) 교회 변천에 있어서의 시대성
- 5) YWCA에 대한 ^{오늘날} ~~과거~~ ^{앞날} 시대성

이상과 같은 상황 검토에 앞서
말씀듣어두고 싶은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시대성을 알려드리는데
끝이기도 하고
이에대한 대책은
다음 서규현 선생님께서
제시하여 줄것으로 믿으며
이어서 있을 분반회의에서
광주 YWCA의
구체적인 과제 모색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시대성

우리나라는 아직
유엔의 회원국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 또는 YWCA 루토그람과도
별도 상관이 있을것 같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어느 시기 보다는 근래에 와서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고서는
해결할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견해 내지는 결단을
요청해 오기도 하여
당황할때가 ^{있을때} 있게 되는데
한일조약이 체결되고
월남 전쟁에 한국도 가담하고
중공이 세계정치 무대의 주인공으로
대두 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국제정세에서 멀어질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남정세에 관하여서만도
일본 YWCA와 세계 YWCA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를 통하여 전달된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여론 및 국내 여론에 대한
우리의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하여서도
올바른 국제정세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연합회 사회문제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국제정세와 한국의 위치"란 주제로
연구회를 가졌으며
이에대한 문제 내용은
이미 부송하여 드린
프린트물을 통하여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문제에 관한
한태수 ^{선영남}교수의 말 씀이
오늘의 국제정세 파악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져서
다시 잠간 내용을
간추려 본다

오늘의 국제 정세는
미, 소, 중공의 삼대 중추 세력의
삼각관계로서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으며

런 월남전쟁에서
이들의 관계가 미묘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소련은
오늘날 공존관계를
존속시키게 되었으며
친교관계에 있던 소련과 중국은
분열관계로 돌입하였고
미국과 중국간에는
적대관계를 이루게 된것이
오늘의 삼대세력의
삼각관계의 내용입니다.

오랜 동안 철의 장막뒤에서
휴박을 이루고 있던 소련과 미국이
공존관계를 이룩하게 된 시점은
1962년 10월경
어려 선생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후즈시코루 수상 제치 당시에 일어났던
큐바 사건이후의 일인데
그 직접적인 동기는
그게게를 용하여
양대국가가 서로의 속셈을
파악하게 된때 기인한다고
한때 수교수^{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 미국은
쏘련은 언제나 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왔었는데 반하여
실상 그만한 용기가 없는것을
알아내게 되었고
쏘련은 그들대로
류바에서의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보기전에는
미국에 3차대전을 아주 꺼리고 있어
쏘련이 마음대로
이익 추구를 할수 있다고 믿어오던
착오가 시정됨으로
쏘련은 미국과 공존관계를
유지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난 다음해인

63년도에 이트리는
부분적이나마 양국간에
핵실험 금지 조약이 성립되었고
심지어 우발적인 사고도 일어나기 쉬운
전쟁마저도 우려하여
쏘련 수상과 미국 대통령간의
직통 전 화까지 개설하기에 이르는등
세계 평화 유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여 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세계의 공산주의화를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쏘련이 미국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믿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쏘련의 태도에
대단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드디어 쏘련과 중국은
분열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쏘련은 미, 쏘간의 전쟁은
어느쪽의 승부를 가리기에 앞서서
세계가 전멸하게 된다고 보는데 반하여
중국은 어떠한 원자무기의 사용후라도
소수의 인간은 남게 마련이니
그 사람들이 이 지상에
공산 사회를 형성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것 등으로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간의 분열은

이때만이 아니며

실력을 지니게된 오늘에 와서

중국은 각기 쏘련에게

잃어버린 영토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두나라의 경제성장의 차이에도

기인된 것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쏘련이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하는데 까지 성장하였는데 비해

혁명초기에 처한 중공은

아직도 국민의 내핍생활을 강요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민의 원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에

미국이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것은

미국이 대만을 자유진영에서

중공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또한

그별수밖에 없는것이

대만을 포기한다고 하는것은

동남아 일대를 공산화 하도록

방치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곧 미국에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 하여

이에대한 대책으로서

중공세력 봉쇄위한

적극적노력이 강구되었고

오늘의 월남 사태가

바로 이들의 적대관계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국제정세 관측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월남과 월맹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
보려고 하는것이
이런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과 공존관계 또는
분열관계를 맺고있는
소련의 위치는 무엇인가?

기실 소련은
양쪽의 어느편에도
편협할수 없는것은
미국과는 불가피하게
공존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하면
월맹측과도 관계를 단절할수 없는것은
중공과 분열상태에 들어서면서
이들 양국은
서로 각자의 지지국가를 늘리는데에
심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었^다

월맹도 하나의
대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부득이 양자택일^에 불가능하여
엄겨주름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계는
극히 불안한 삼각관계의 움직임 속에
처하게 되었으며
인류는 이러한 험 정세의 번동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세 관측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정세에
변화가 있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중공에 의해서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이다
그 변화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 형제}
한테 ^{문명} 수 ^{문명} 수
미국의 텍나마하 국방상이
미국 국회에서 한말을 빌려서
실행하기를

중공이 미국에게
전쟁을 유발시키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고
집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회의 핵무기 실험을 거친 중공이
현 상태도 앞으로 계속 10년동안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미국이 만일
오늘의 상황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중공의 지습을 당하는 경우
미국인 800 - 1,200만(?),
방위체제를 어느정도 진전시킬 경우
400 - 600만의,
보다더 고도의 방위책을 구비하는 경우
0 - 200명의 인명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미국의 방위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감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미래상의 비교에 대하여서는
들은바 있으나
중공이 쏘련을 공격할수 있는 능력은
지금으로 부터 5년후에
준비가 된다고 하는점으로 미루어

쏘련은 아이토니하게도
중공의 핵무기 소유를
미국보다 더 두려워 한다는 결론이
엄어 집니다.

불탄서의 군사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중공이 시베리아 공습지대를
공격하기만 하면
쏘련은 군사적으로
극히 약화된 것이다" 라고
한것등에 비추어
세계 위기는
지금부터 5년후도 가정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날이 중공이 아세아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날이며
그것은 바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날이
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20세기 최대 석학의 한사람인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미국과 쏘련이
연합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
21세기 2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중공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은
보게될 것이다" 라고 한것도
이런점에 근거를 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공이 그러한 공의
현실화를 위하여서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에 있어서
중공 자신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보다 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 소유문제에 관련시켜본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불란서와 중공: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마파의 주인이면서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불란서와 중공이
같은 노선을 접을것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지난날의 국제정세가
이데오토기의 대립이었다면

3월 29일
미국이 유엔에서
중공을 제외시킬
것을 약속한
것이다

오늘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교수는 말씀한바 있습니다.(빈부의 차이)

여기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

한테수 ^{교수}의 말을 빌리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노선을 같이하도록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근래에 많이 논의 되었고
또 되고있는
한일조약 또는 월남파병은
불가피한 지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힘이
독자적인 발걸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적이라는 말은
적확나 절망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국민의 힘으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을수는 ~~없을까요?~~ *있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국가로 하여금
보다 주권을 향유할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국민인 우리들이
각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것이며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연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므로
여기에서 약하기도 하나

국제적 또는 기독교적 목적을 지닌 YWCA가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특별히 와해의 지분 ~~을 가진~~ YWCA의
~~중점을 두는 것을 바닷하~~ ~~의 중심이~~ ~~의 중심이~~
~~근의 토착이 무엇보다~~ ~~핵심적~~ ~~핵심적~~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 보는데 ~~모양~~
이러한 시대성에

YWCA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하여 보아야 하겠읍니다.

2)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천에 있어서의 시대성

이 부분에서의 시대성 파악은
얼마전에 한국의 모든 의원 또는
성교단체들도 구성된
한국 육지가단체 협의회에서
주요한 선생님이 취급한 자료를 근거로
생각하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집약적으로 설명한
1966년도의 한국을 소개하면

1) 1966년은 대통령 선거전의 전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경향이
1967년 5월에 거행될 선거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질 것이며

2) 일본과의 국교가 성립되므로
일본 외교 사절 및 민간들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등주에
큰 작용을 일으킬 것 ~~후~~ ^후 물론
한국 국민의 오랜동안의 숙원이었던
일본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떠한 국민의 반응이 일어날지
숙단하기 어려우나
이에대한 국민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것~~

3) 월남 파병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각도로 일어나게 될터인데
이런 문제도 단순히
자연적인 루세에 방임해서
안될것이 명백하므로
국민에게 충분한 교육과
~~정보~~ ^{정보}의 노력이 있어 주어야 하는것등의
특이한 여건을 들면서

1966년은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희망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민은
이와 대결할수 있는 자세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심생님은 강조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여 봄으로
오늘의 YNCA의 책임 분야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봄도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인구증가의 문제

우리나라의 총인구의 증가율은
매년 3.2%의 인구 성장을 보여
년간 약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필연적으로
경제 안전과 성장에
장해를 가져왔으며
빈곤과 사회적 조성,
주 범칙의 증가,
통기의 악화,
청소년의 타락,

집단 자살 등의 요인이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가정유지의
책임있는 부모가 되어
결함 ^{경제적}가정을 이룩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증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큰 균치를 살고 있는데
어느 사회학자의 말에 의거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두가지 점에서
폭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며
2. 하나의 문제는
전체 인구에 줄 식량의 부족이고
또 하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줄
자리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는
인구의 폭발이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실감이 별로 나지 ^{알고리즘으로 모른다} 않는데
우리나라 가정인들은
대개 5남매를 두기를 원하는데
그 5남매가 결혼하여
또 5남매를 두는 식으로 따져보면
십대에 가서 1,00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많은 인구는
근태의 의무교육의 문제에도 (필수교육)
큰 관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와 가족계획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YPCA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산아제한의 한계성을
천명하여야 하며
각 기관들은
계획적인 계몽과
활동전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주요한 선생님은
인구증가와 관련 시켜서
실업자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취급하여서
내어놓으신 통계 수자는 ^{이제까지}

모두가 남자들에게 '배당된' 거이라 여겨
 약하였으나
 부녀자에게 권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
 대책을 들어보면
 사회사업 단체들이
 단순한 구호활동에서 벗어나서
 직업보도 방향으로
 그 사업^{사업}들을 전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 쉬운일은 아닌것이
 현존하는 실업규모에서
 자원을 충당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망하다고 보^보아지는 것은
 일본, 대만, 홍콩등의
 지역의 노임의 상승 및
 노동인구의 점차적인 부족으로
 수공업 분야에서 후퇴하게 되는 관계로
 우리나라가 그 인계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YWCA에서는
 서울 YWCA와 광주 YWCA가
 이런 부문에서
 현저한 역할을 담당하여오고 있^다고 믿^고는
 이것이 오늘의 부녀자의
 공통한 요청중의 하나이라고

지난번 YWCA 행정자 협의회에서
보고 되었습니다. 민간 협조 하
이 어 는 대 의 이 의 하 는
국민의 사기 문제

어떤 관측자는
한국 국민의 사기와 사회적인 기강이
해방후 어느때보다
저하되었다고 평하고 있는것은
너무나 가혹한 평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후진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과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있기도 하지만
어떠한 모임에서도
가지게 되는 느낌으로서
지난번 가졌던
연합회 푸토그람부에서
최근의 소아마비 예방약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실들이 많은것에
있는힘마저도 다 풀리는것은
어쩔수 없었는대 그

이것은 저만의 체험은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책임을 인식하여야 하는
국민의 각계 각층의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지식인,
학자, 교육자, 언론인, 종교가, 지도자 및
기업가들은
쓰게 각성하여야 함은 물론
선각자로서의 책임을
자담하고 나선 YWCA 지도자들은
목적에 굳건히 서서
마땅히 있어야 할
도덕적인 반발력 또는
반항정신을 살려서
혼탁한 사회풍조를 쇄신하는
경생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제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환한 원주교 신부가
한국사람이 가진 단점으로서
명량하지 못한것을 지적한것을 수긍하면서
YWCA는 어떻게
우리국민에게 삶에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느냐 하는것은
큰 과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양학업이 대단한데 비해
각급학교에서 이들을 수용하여 교육시킬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교육의 집적인 저마를 초래하여
정서 및 생산기술교육에 미치지 못하여
인간교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들
언급 합니다.

일부 교육의 귀족화 및
각종 계단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은 위협받고 있어서
집적으로, 양적으로
마산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에 가서 오히려
아동이 해쳐지고 있다고 말하는
교육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들을 위하여
YWCA는 사회가 안정 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는
생활 방식을 전하기 위한
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국민 각자에게
어린시절에 심어놓기 위하여
의무교육에 관한 문제에
단호한 태도로
압력을 가함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YMCA의 책임이
근태에 와서 보다 중요시 되게 된것은
인간 형성이란 본래
가정, 학교, 종교에 의뢰되어 오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
그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의 성취를 담당할수 없다는
한탄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오늘날 자녀교육을
충분히 다할수 있는 가정이
흔하지 않다는 것인데
일견에 어떤 책에서
점차적으로 자녀문육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구절을 읽었는데
외국의 세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들을 모아놓고

스무살이 되도록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자동차 한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더니
 딸아들이 하는말이
 "아버지 꼭 약속 지키지요? 라고 묻었고
 둘째아들은
 "아버지 열여덟살까지도 해요" 라고
 하는가 하면
 막내아들은
 "전과 말씀 하시지" 라고 하면서
 문을 활차고
 뛰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애는 벌써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YMCA도
 이미 착수한 것이지만
 서울 YMCA가 유년기의 아동 교육을
 중요시 하여
 과거 12세 이상 부녀자에게
 한하던 YMCA 투포그램에
 변화를 가져온 사실에
 100% 수공이 가계 됩니다.

학교는 이미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듯이
그저 기술과 학술을 연마하는 장소,
더 심하게 말한다면
상급학교 진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시험 훈련소에 불과하며
종교는 종교대로
대중과 직접적인 관계들
점차적으로 상실하여 가기 때문에
전 인간적인 인격 형성에
그리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육 또는 사회교육기관이기도한
YMCA가
하여야 하는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겠는가에 관하여는
세로운 연구와 실천이 요청되며
YMCA의 모든 프로그램에
어떠한 모양으로나
파급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세계 YMCA 회우일의 주제는
"여가"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여가"가 우리에게
 적이나 자치스러운 어쨌로
 오해되기 쉬우나
 세계는 "여가문명"으로 향하고 있으며
 인간은 얻어진 여가 또는
 감응당한 여가를 선용함으로써만이
 생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YWCA가
 금년도의 푸토그람 중점을
 "여가선용"이란 문제에 두었다는 것은
 (Futurology) ^{미래학} _{관련자료} 위한 푸토그람을
 보다 중점적으로
 실천할수 있으리라 믿어서
 의의 있다고 봅니다.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능력이
 우주세계에 까지 미치게 하였고
 인간들은 인간의 발전도
 그와 병행시키려고
 있는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이
과학의 진보에게 압도되는날
인간의 내면적인 윤리관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일하는 시간을
날로 단축시켜가고 있습니다.

YWCA는 여가를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가가 주어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에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의 휴식촌에서,
뒷골목에서,
육원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청소년의 불상사는
모두가 훈련없는 여가의
소산물이었다고 단정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성인들간에도 성행이 되고 있는데
 참바람, 치마바람을 비롯해서 일어났던
 부지기 수의 소동들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YMCA가 "여가선용" 루토그램을
 전개하는데
 필히 유의할 점은
 각 개입이
 어떻게 구체성에 입각한 자세로서
 여가선용 루토그램에
 참가하게 하느냐 하는
 그것은 도약야 하겠습니까.

인도의 잔디웅께서
 "우리들의 정신의 참문은
 각 방면으로 열어놓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곳으로
 모든것을 날려 버려서는 안된다" 라고
 학선 말 씀은
 좋은 경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경제의 문제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문물의 급속한 침투로 말미암아
사치와 소비성 풍조가 증대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전황적인
곤핍상제등을 통한 소비경향이
뾰족같이 국민생활에
스며 들어 와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단체도 그러하더니와
YSCA도 오래전 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성을 막기 위하여
저축의 장려 및
생산활동을
권장하여온바 있습니다.

1965년도 전국 여성대회에서는
"알뜰한 주부살림 나라살림 늘린다" 라는
주제하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번영은
먼저 주부의 바른 소비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여
부녀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貯蓄増大를 促求

반스틴 處長 演說

「반스틴」 부총장은 韓國



經濟는 앞으로 발전할수있
는 우수한潛在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의 활용을
위해서는 韓國國民의 계속적
인자극과 기회의 확대가 절
실하다고 말했다.

24일서울 라이언스·클럽
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계
속증가경향에있는 韓國經濟

의 外資導入에연관, 「이러한
外資가 生産的投資로 발전
할것인지는 오로지 韓國民
스스로의 노력에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韓國經濟발전에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는 國民
貯蓄이 부족한것이라고 경
고했다. 이에 정부는 특히
貯蓄의 증대를위해 장려한
조치를 취해야 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한국여성소비조합이
탄생하고
여성문제 연구원에서는
소비자와 가정경제란 소재자를 내는 등
주부들의 경제적 자각의 함리화와
가정경제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이
적극성을 띄게 되었습니다.



과학발달의 문제

과학의 발달은
날도 우리들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약속하는 한편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그 혜택을 100% 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삼삼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는 하나
날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고 단축 또는 감소시키고 있음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기계에다
 동전을 집어 넣으면서
 선물주려는 대상자의 나이, 또는 취미,
 그리고 선물의 금액을 표시하면
 곧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종이 쪽지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 일본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곳에 그들이 소위
 세계 제일이라는 전자투척에
 일정한 금액만 집어 넣으면
 내게 적당한 결혼상대자를
 말하여 준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일본돈 500원만 보내면
 그것을 보아줄수 있다고 하는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원자음식)

※. 미국지식 - Operation match

확실히 이며한 현상은
 인간들도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과신하기에 이르렀고
 두말할것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하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영국의 지식이 다른 것들

우리나라의 현황은
 이러한 문제들에 앞서서
 적은 과학의 혜택이나
 균등하게 누구나가 받을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지난 수년간 YWCA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현대화 하는것 위한
 노력이었 다고 보며
 보다 살기좋은 국가 건설 위한 노력은
 아직도 중대한 YWCA의 사명의 하나로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근세의 신문지상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는바
 부정식들에 관한일,
 또는 부정약물에 관한
 가짜소동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 인간
대책강구 하는
 많은 숙제를 부담하게 되는데
 문명의 혜택을 만끽하는 소리에 비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것을
 뼈아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YWCA는 우리나라의 빈곤을 몰아내며
합리적인 생활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참사는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과학의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YWCA 2531

3)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서의 시대성

오늘날 여성에게 부과된 과제는
어느 시기보다도
광범위한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과된 과제가
국민에게 자유와 생존의 권리 보장이 부여되는
하나의 질서있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복된 가정, 사회, 국가 및
세계 건설에 있다고 생각할때에
인간인 여성에게 부과된 과제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것과
다름이 없겠으나
여성이 가지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이 다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숙해있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달리하고

분확권을 담지하므로
우리 각기의 책임이 다른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성은 옛과 달라
가정에서는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한편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소비자로서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등등의
복합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책임에 덧붙여서
여기에 계신 여러 분들은
또하나의 다른 책임
즉 YWCA 운동의 지도자,
또는 참여자들로서의
특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서
반듯이 한 단체 또는
구름 이상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도 점차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대부분의 서울 가정의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의 가족제도는
 소가족 제도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드물고
 가족계획으로
 자녀의 수도 적으며
 살림은 식모에게,
 머리는 미장원에서,
 옷은 바느집 집에서,
 자녀교육은 가정교사에게 맡기우는
 형편이 되고보니
 어떻게 하여 일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것이
 하나의 문제로서 제기되며

opinion 금년도의 세계 YWCA 회우일의 주제는
 "여가 선용" 위한 좋은 활동이
 계획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녀자의 사회진출이
 비단 유급에 한한것이 아니며
 여러 선생님^만의 ^만두급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나라는 물론

이기

우리나라의 여러 부녀복지 사업단체들이
이들의 지도력에 의지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미국에서는 80:20,
우리나라에서는 93:7%라는
무급지도자의 엄청난 백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58년 3월
보건사회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4%인 435만명이
남자 취업인이고,
36%인 245만명이 여자취업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녀자의 높은 취업율은
분명히 부녀자들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 지대한것이 되었으나
여기에서 YWCA는
이렇게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녀자들이 사회진출 하는데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를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지
금년도는 대통령 선거의 전야로서
우리나라에 이상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데에는

教會統合에 最善

1966.3.24 大主教 共同宣言

【로마 AP·間和】「로마 敎會 바오로」6世와「정리 베리 天主敎」24일 그들의 敎會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리 베리 天主敎」바오로 6世와 함께 기도를 올리고 그들의 敎會가 통합을 위해 협조할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宣言을 함으로써 3,500년 전 그의 역사적 전통은 전 세계에 이르렀다. 敎會와 聖公會 天主敎의 역사상 처음으로 발표된 共同宣言에서 敎會와 「정리 베리 天主敎」4세기 이후의 분열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 두 敎會가 전례없는 접촉과 공동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정리 베리 天主敎」그 후 수세기 동안에 가지지 못했던 서로 敎會와 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敎會의 최근의 조치가 「정리 베리 天主敎」과 다름없다. 로마·가톨릭 宗敎 敎會를 회합시켜 한 개의 기원은 것이라고 하는 복된 선언을 발표했다.

歷史的인 署名 「정리 베리 天主敎」마이클·켈시·博士(主)와 敎皇 바오로 6世가 24日 基督敎 敎會를 努力한다. 共同宣言에 署名하고 있다. 【AP 電 羅馬·間和】

무엇보다도 올바른 선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부녀자들의 올바른 사회진들이
 그들이 가진 선거권을
 보다 확고한 주체 의식에 입각해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여기에서도 YWCA의 과제는
 뚜렷해 진다고 봅니다.

4) 교회의 변천에 따른 시대성

오늘의 세계변천 상황 가운데에서
 근래의 종교계 내지는
 기독교의 변혁 보다
 더 급진적인 변혁은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교파와 교파간의 융합
 또는 천주교와 동방교회와의
 400여년간의 장벽의 부너지
 그리고 아세아 여러나라에서는
 타종교와의 대화 모색등
 얼마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상황들이
 현실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오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걸쳐서
 세계 YMCA가 세계 YMCA와 공동주최로서
 타종교와의 문제위한 협의회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자 파송을 하지 못하여 애석하나
 여기서는
 기독교가 소수자인 국가에서의
 YMCA의 기독교적 책임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타종교와의 관계,
 회원에 관한 문제,
 그는 교회 또는 타기독교 단체들과의 관계
 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관심은
 YMCA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 간에도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6대종교 협의회를 가져
 드디어 한국종교 연구협회를 구성하고
종교계라는 월간지를 통하여
 이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널리 알리고 있는것을 아시려 제발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교간의 대화의 목적이 평화에 추진하

대노하면서

어디까지나 선교의 목적이 아니면

어떠한 과제 위하여서만이

대화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교계 지도자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들은 이 사회에서 드디어

민족정신 운동이 마침내

종교간의 장벽 철폐문제들

일으켰다고 하면서

수익에 걸쳐

종교의 오착화와 인습화에서의

종교해방이란 공동과제가 논의 되었고

한국이란 토양위에서의

종교 자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문제 즉,

샤마니즘적 요소의 탐미,

대중과의 거리감의 불식,

각 종교 ^{그들}의 고비 정리에 앞서서

사회참여와 빈곤구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신앙 확충이 선정 이러한 장

이러한 것들이 주의 종교 앞에서 행 다.

강원용 박사의 말씀에 의하면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한국문제에 관한 기사 가운데 한국철도

한국의 종교간의 대화들

특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국민족은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한 민족국가를 형성할

매우 놀라운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위대한 민족이

이런 고된 시련을 겪는

가장 깊은 원인은

단결과 협조를 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민족의 구심력을

가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학생운동 연맹과 함께

YMCA 또는 YWCA들만이

예루메니캄 운동으로서

또는 명신도 운동으로서

교회와 통일 또는 사회참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던 시대는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전 부터
세계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부트짚고 나오면서 부터
YMCA나 YWCA의 특수성을
보편화 시키는데 이른 사실을
우리는 유의 하여야만 합니다.

지난 1월 17 - 20일 사이에
온양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만을 들더라도
교회의 번성한 모습과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엿볼수 있는데
기독교의 정치참여,
기독교인 즉 경제 및 외원문제,
새로운 형태의 봉사들은
이들의 내용이
주제 이상으로 적극성을 띄고 있어
우리나라 교회의 사회참여의 변모를
볼수 있었습니다.

100여년전에
YMCA가 탄생하던 시기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발전을
오래한 것입니다.

그당시의 기독교자들이
사회요청에 직면하는데 있어
부득이 교회 밖으로
나와야만 하였던 사실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필연적인 여건으로서
그리 하여서만이 다른 교파의
신도들과 함께
일할수 있었으며
뿐만이 아니라 그당시의 교회는
너무나 제도화 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회 요청을
임의로 직면하기에는
어려운것이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YWCA는 탄생하였으며
그럼으로 기독교자들이 사회참여 하는데
참신함과 자유도움과
융통성을 지니며
진취적일수 있게 되었다고
역사는 암이켜 줍니다.

가끔 우리들은
YWCA 상황도 살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도화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 하기란
어려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그의 증거와 봉사의 방법만도
엄청난 변천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연합회 지난 3월도 월간지에도
실렸을지다마는
덜컹보아
YWCA의 투프로그램 계획인양
우리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여겨오던
그룹활동 방법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급진적인 변천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YWCA 운동과
유사하게 된 오늘에 있어서
개혁자적 운동체인
YWCA의 앞으로의 기독교 운동으로서의
자세와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과제를 모색할것이
시급한 문제가 됨은
생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도 아니며
하나의 단순한 여성단체
또는 여성운동체도 아닌 YWCA의 이미지는
꼭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YWCA의 후련미어는
꼭 무엇입니까?

이것을 시급하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지셔닝에
있대니
시대성에 입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되는 것입니다

5) YWCA에 대한 시대성

광주 YWCA는 한국 YWCA와
역사를 같이 하여서
내년도에 창설 4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YWCA가 세계 YWCA에는
제 1급 회원국으로서
지난번 세계 YWCA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YWCA 구조가 토벌적인 것으로
참가 회원들에게
표명되어 배부되기도 하였고
여러나라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YWCA는

비록 회원조 회원국이라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체제는 갖추었다고
느껴졌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가장 권통이 오랜
여성단체로서
그 업적도 상당하여
20여개를 헤아리는
모든 여성단체들이
YWCA가 원하던 아니하던
한국의 여성운동의 지도를
YWCA에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사회에서,
중고등학교에서
YWCA는 분명히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들은 놓여 있습니다.

YWCA는 비단 이기관에 속한
각 개인 회원에게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라
아단체의 구를 또는 기관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나라의 복지국가 건설하는데에도
큰 책임이 있는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YWCA가 공언한 우월감에
사도감히 있다고 일소에 부치기에는
너무나 한심적으로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YWCA의 오늘의 한국에서의
책임이^임 무엇인가를
지적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45세라하면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
하나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서
타자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에 개최한
연합위원 총회에서
오늘의 YWCA가 명실공히
45주년을 맞이하는 YWCA인가 하는것을

- 1) 회원과 YWCA 확장문제
- 2) 지도자 포섭 및 지도력 양성
- 3) 재정 문제
- 4) 투노그램 방향 등에 비추워서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3월초 YWCA 월간지를 통하여
이미 알려 들었습니다.

1967년도에는

YWCA 3년대 퇴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므로
이해는 성숙기에 임한 YWCA로서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YWCA의} 시대성에
적응하는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각분야에서의
이상과 같은 ^{시대성}에 비추어 볼때
오늘의 YWCA는
본기점에 놓여 있음에 윤리가 없으며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YWCA 지도자들은 큰 책임감을 인식하여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YWCA 지도자들은
YWCA 어떤 분야에서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던지
YWCA 전체의 책임을 지고있는 것이며
이것은 두려운 것이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몰인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이사로서 선출되었거나
위원 또는 지원으로서 선정되었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고 임하였을때
이미 역사적인 이 순간의
YWCA 전체의 책임은
우리 어깨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분명한 현실에 직면하는데 있어
우리의 운동체가
전국적인것의 일부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가장 권위가 오랜
세계적인 부녀 운동체의 일부인것을
인식하게 될때에
용기들 얻게 되며
또한 오늘의 YMCA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이보다 적은 관심에서
다루워 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토록 중요한 책임을 맡게된것은
하나의 우연한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으로
구약 성서의 요나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피할수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 YMCA는 창설된지 40여년간
창국의 발전을 가져올수 동시에
부과된 책임 수행을
훌륭하게 다한것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 엄격한 일임이 나열할수도 없거니와
그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YMCA가 창설된 이래
기독교운동, 또는 민족운동으로서,
부녀자의 지위향상 및 교육운동으로서,
구름활동 단체로서,
후생사업체로서,
또는 각 방면의 복지사업 체로서
부과된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니와
이들은 YMCA 지도자들의
책임 수행을 통하여
이루워 졌던 것입니다.

노모의 이야기
You are my love
천송이꽃
영광의 노래
기독교의 노래

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광주 YMCA가
한국의 모범적인 YMCA로서
이 나라에 크게 공헌할 것을 기대하며
따라서 연합회에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을
부족치 않게 하겠다. 각 동맹에서 호의와
통제의 원마리를 끊어 놓는 국민
이 되시라 - 52 -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YMCA를 통하여 부과하여준
오늘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을 믿고
하나님앞에 ~~정순히 임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많은 책임을 안몸에 지니고 계신 여러분께
그리고 YMCA 지도자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수천년전 도벳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것 같이
"내가 정녕 너와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힘있고 알듯도 나감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